

# 익산~대야 복선전철 ·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통

### 전북도, 개통식 개최... 철도 이용수요 창출 · 철도수송 안정성 · 효율성 증대 · 새만금개발 촉진 기대

대한민국 내륙에서 군산항에 다다르는 익산~대야간 복선전철,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철길이 모두 이어졌다.

이로써 향후 새만금항 인입철도까지 완공되면, '환황해권시대'를 겨냥한 국가철도기간망이 완성돼 동북아 경제허브를 꿈꾸는 새만금개발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10일 군산항역 철송장에서 손영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송하진 도지사, 신현승 군산부시장, 정현을 익산시장,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사장, 나희승 철도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대야 복선전철,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개통식이 국가철도공단 주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인입철도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양회, 석탄 등 자원과 컨테이너를 포함한 항만 물동량을 주요 간선철도로 수송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철도이다.

우선, 익산~대야 복선전철은 총사업비 4,946억원이 투입돼 익산 동익산역에서 군산 대야역을 잇는 총연장 14.3km의 여객과 화물 수송 철도이다.

익산~대야 복선전철은 전라선~장항선~경부선(수도권)을 축으로 한 우회 연계수송망 확보로 호남선의 선로 용량 부족해소, 철도화물 수송의 안전성·효율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군장산업단지 연계로 철도 이용수요 창출과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선전철화'로 기존에 다절



10일 군산항역 철송장에서 열린 익산~대야 복선전철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 개통행사에 송하진 도지사와 손영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정현을 익산시장, 김상근 국가철도공사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개통축하 세리머니를 갖고 있다.

기관차만 운행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전차선로·전력설비 등을 설치해 친환경 전기차량이 운행할 수 있게 됐고, 현재의 단선보다 철도 수송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열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익산~용산까지 각 1일 14회 운행된다.

다음으로, '군장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는 총사업비 6,167억원에 대야~군산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28.6km의 화물수송전용 철도이다.

이번, 개통으로 군산항 물류수송이 전국 단위 국가철도망과 연계됨에 따라, 기존 도로 중심의 수송에서 정시성 및 안전성을 갖춘 철도 대량수송이 가능해져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으로 물류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열차 운행은 철송장 운영계획 확정 후 내년 3월께 왕복 8회(발송 4회, 도착 4회) 시작할 예정이며, 주요품목은 컨테이너(우드패킷, 발전탄), 철강 등

이다.

한편, 이 두 사업은 지난 2012년 12월 노반공사 착공 후 8년간 추진해 이번에 당시 개통식을 갖게 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익산~대야 복선전철 및 군장산단 인입철도는 생태문명 중심지 새만금을 내륙 나아가 세계와 연결할 것이다"며 "군산항도 철길을 통해 대중국교역 거점이자 서해안시대 물류교류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 결핵 예방관리 재원 마련 적극 동참

### 전북도,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 가져... 올해 쉼 모델 '행수'

결핵 퇴치 및 예방홍보 재원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쉼 모금사업'에 전북도가 적극 동참한다.

전북도는 10일 대한결핵협회 전 북지부(회장 임환)로부터 크리스마스 쉼을 증정받고,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결핵협회는 결핵 퇴치 및 예방홍보 재원 마련을 위해 크리스마스 쉼 모금사업을 매년 전개하고 있으며, 전북도청도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해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0년 크리스마스 쉼 모금사업은 내년 1월까지 진행해 총 30억의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북지역 모금액 목표는 1억700만원이다.

크리스마스 쉼 모금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검진과 학생 행복나눔 지원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 결핵환자 복약지원 ▲대국민홍보 등 결핵퇴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크리스마스 쉼은 EBS 인기 크리에이터 '행수'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이미지의 '행-하! 행수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선정해 귀엽고 익살스러운 모습의 행수를 다채로운 분위기로 표현했다.

행수의 친근한 캐릭터가 결핵퇴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드릴 수 있기를 염원하는 취지이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결핵은 아직도 발생률이 높고, 치료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결핵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많은 도민들이 크리스마스 쉼 모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과장은 "도민들중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기침예절과 손씻기 실천"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관리 총력

### 전북도,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련 시설 점검 · 위반시설 적발

전북도가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올해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관련 시설 239개소를 점검해 위반시설 4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유역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등 7개 시·군으로 축산농가 6,647개소, 재활용시설 등 관련 업체 110개소, 공공처리시설 6개소 등 총 6,763개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오염농도가 높은 가축분뇨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며,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올해 총 2,942개소를 점검해 위반 시설 330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 유출 3건 ▲관리기준 위반 14건 ▲무허가 운영 및 변경신고 미이행 29건이다.

도는 이를 시설에 대해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24건(1,175만원), 조치명령 6건 등 행정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은 지난 11월말까지 관련 시설 2,525개소를 자체 점검하고, 공공수역 유출 및 무허가 운영 등 264개 위반시설을 적발했다.

위반시설에는 고발 100건, 과태료 부과 131건(7,325만원), 조치명령 33건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가축분뇨의 이동 및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 178대를 점검하고, 위반차량 20건에 대해 고발 8건, 과태료 12건(1,010만원) 등을 조치했다.

전북도는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역 점검 강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한 비대면 모니터링 확대,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재영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은 "도는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통해 가축분뇨로 인한 도민 불편해소와 환경오염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중국사무소, 빅데이터 센터 벤치마킹

전북도 중국사무소(소장 이지형)가 빅데이터 배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사무소는 지난 2일 상하이 데이터 센터인 상하이 시북 고신기술복무 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최대 빅데이터 벨리모 알려지지 구이저우성의 구이양 빅데이터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하이 시북 고신기술복무 단지는 상하이 지하철도10호선 무인운행, 비접촉식 엘리베이터 운행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신 응용사례를 시찰했다.

이어, 구이양에서는 구이저우성 의사 판공실과 전북-구이저우성 간 빅데이터 분야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고, 구이양 빅데이터센터 종합시험구, 빅데이터 거러소 등을 살펴봤다.

이 같은 활동은 SK그룹의 '새만금 데이터센터 조성 투자협약'에 따라 빅데이터 선진지인 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전북도 중국사무소는 새만금에 2024년까지 데이터 4개동, 2029년까지 16개동의 SK데이터 센터가 들어설에 따라, 빅데이터 선진지인 중국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정보를 수집해, 도 발전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빅데이터 분야 기업유치 및 창업을 위해 추진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전북도가 빅데이터 분야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도, 외국인 주민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전북도만의 특화된 외국인 주민 정책이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이 전국민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것이다.

전북도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0년 지자체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문화수용성 증진'으로, 다른 지자체는 추진하지 않는 전북도만의 특화사업으로 승부를 걸었다.

지역방송사와 다문화 정보공유 방송 프로그램 '다정다감'을 제작하고, 다문화 소식지 '사람들'을 발간하는 등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들을 발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됐다. 또한,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이나 잡지, 신문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코로나19 공존 속에도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했다.

도는 매주 일요일 지역방송사와 함께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을 방영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행사 안내, 뉴스 등을 베트남어, 중국어 자막으로 방송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에게는 이해도와 친근감을 높이고 도민들은 인식개선을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 점이 인정받았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과장은 "앞으로도 도민들과 경계를 허물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현영**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 건강해소 · 웃음치료(힐링) · 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설했던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 · 용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김양욱 교수**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